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김현주	소속(학부/과)	기계설계공학과
파견 학기	2018학년도 2학기		파견 국가	리투아니아
파견 대학	VGTU(빌니우스 공과대학교)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주변에 선배님들도 많이 다녀오시고 추천을 해주셨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1. 비자관련

비자관련 서류 중 여행자 보험 서류가 필요한데 저는 삼성 여행자 보험을 들었고 비자발급 할 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국 학생들 중 가격을 매우 낮은 보험을 들었으나 아무 문제없었던 걸 보면 비자 요건만 맞추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자를 위한 여행자 보험 조건에 몇 가지가 있으니 잘 살펴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기간에 따라 비자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기가 끝나고 여행 다니는 일정까지 생각하신 후 날짜를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에는 리투아니아 비자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는데 이번 해부터는 쉬워져서 준비 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서 서류를 좀 늦게 줘서 무비자 체류 일정이 계속 까인다는 것인데 그 부분 계산 잘해서 학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는 학기 시작한 후 한 달 안에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학교에서 주는 서류가 발급되면 바로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자 받는 곳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Migration office이고 한 곳은 Naugarduko g.100입니다.

Migration office은 학교 기숙사에서 가까운 곳이며 버스타고 20분정도 걸립니다. 작년까지는 이 곳은 선착순이었으나 이번 해에 바뀌어서 예약제입니다. 따라서 예약을 하고 정한 시간에 가셔야 하며 예약하는 사이트는 두 곳이 같습니다. 다만 장소만 원하는 곳에 따라 바뀌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자 발급하는 날이 대부분 다 비슷하니 학교 비자 나올 즈음에 두 곳 다 먼저 신청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augarduko g.100 이곳은 학교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며 큰 곳입니다. 이 곳도 예약제며 작년에는 까다롭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수월해져서 놀랐습니다. 서류는 리투아니아어로 번역 할 필요 없으며 비자관련 필요한 서류만 잘 챙겨 가시면 됩니다. (다만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항공권 구입

항공권은 키세스라는 항공 대행사에서 했습니다. 학생증을 발급하는 곳이며 참고로 국제학생증을 한국에서 발급하게 되면 유럽에서 무효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다시 만들어야 하지만 저는 우선 키세스 항공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따로 발급을 했습니다. 이 항공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싼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저는 돌아올 날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도로 구매하였으며 갈 때는 폴란드를 레이아웃하여 빌뉴스로 갔으며 40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한국으로 올 때는 폴란드에서 한국오는 비행편을 27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항공권 가격은 비수기나 성수기냐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제 항공권이랑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때 갈 때 둘 다 비수기였기 때문에 싼 가격

에 구매 할 수 있었습니다. (8월 중반 출국, 2월 중반 입국)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왕복으로 끊는 경우가 많은데 학기가 마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 입국을 하시기 때문에 동선이 꼬이지 않게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편도로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카드

학교에 처음 가서 오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카드를 발급하게 되는데 esn카드, 국제학생증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다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다 만원에서 만오천원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sn카드는 여러 가지 할인이 있는데 flix버스 할인, 라이언에어 위탁수하물 무료+할인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카드로 마지막 유럽 한달 여행 동안 위탁수하물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았으며 할인 받은 가격에 쓸 수 있었습니다. 국제학생증도 많은 할인이 있는데 박물관이나 여러 관광지, 음식점에서 할인이 많습니다. 가격은 만원이지만 혜택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4. 교통권

리투아니아의 교통권은 매우 쌉니다. 저희는 보통 한 달 권을 끊어서 다녔는데 5유로 조금 넘습니다. 교통카드는 빌뉴스 교통카드를 구매하여 이용하여도 되며 국제학생증에서 충전할 수 도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곳은 이름은 따로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으나 우리나라처럼 딱 교통카드를 충전 할 수 있는 가게처럼 생겨서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교통카드에 충전하고 버스에서 카드를 찍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경찰에게 걸렸을 때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검사하는데 꽤 자주 검사를 하니 충전을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첫 벌금은 8유로 정도 했고 그다음에 걸리면 계속해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처음 벌금 가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금으로 냈을 경우 일회용 권은 50센트입니다.(원래 가격은 1유로이나 국제학생증을 보여주면 50센트입니다. 국제학생증은 할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관광지에서 티켓을 구매할 때 일단 보여줍니다.) 일회용권은 환승에 관계없이 3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5. 물

유럽에는 still water와 탄산수가 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 탄산수만 세통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still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일반 물입니다. 구별이 힘들면 눌렀을 때 조금이라도 눌러지면 일반 물이며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탄산수입니다.

6. 마트 카드

밑에 마트 종류가 설명 되어있습니다. 주로 맥시마와 이키를 이용하게 될 텐데 둘 다 카드를 만들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만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7. 술

리투아니아에서는 평일에는 8시 이후, 주말에는 2시 이후에 술 판매가 금지 되어있습니다.(pub제외) 따라서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실 때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공공장소에서도 법적으로는 금지 되어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1. 대형마트

-akropolis(아크로 폴리스), ozas(오자스)

대형마트로 안에 맥시마, 자라, H&M 등 다양한 옷가게, 화장품 가게, 마트 등이 있습니다.

-MAXIMA(맥시마), iki(이키)

이 둘은 이마트 같은 개념으로 식료품점, 마트 같은 개념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도 이키가 있으며 학교에서 20분정도 걸어가면 큰 이키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주로 우체국 업무를 봅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Learning Agreement

개강하기 전에 한국에서 LA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개강하고 한 달 정도는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듣고 수강삭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계설계공학과인데 전공 수업 1개, 체육, 사진수업, 데이터베이스(다른과 전공) 이렇게 네 과목을 들었습니다. 우리학교 최저학점이 얼마인지 잘 살펴보고 신중히 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국인들이 주로 들은 수업으로는 리투아니아어, 영어수업 등이 있습니다. 체육 수업은 바코드를 찍어서 몇 번 이상 출석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나뉘게 됩니다. 배구수업, 유도, 코어, 헬스 등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헬스를 많이 하시고 여자분들은 대부분 코어를 들었습니다. 저도 코어를 들었는데 초반엔 힘들었지만 체력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었고 무료로 PT를 받는 느낌이라서 매우 좋았습니다. 제 학기에는 20번 이상이 A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진 수업은 시험은 따로 없고 교수님께서 내시는 과제를 하면 됩니다. 과제로 성적이 나뉘게 되며 그때그때 내는 사진 과제를 수행하신 후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이론 수업은 사실 조금 지루합니다. 전공은 자동제어를 들었으며 자동제어과목 중에 자동제어 시스템과 자동제어 두 과목이 있는데 자동제어 시스템은 전자과 전공 수업입니다. 생각보다 과제가 어렵고 시험도 어렵습니다. 출석 점수는 거의 없는 것 같고 LAB work 와 이론 수업이 있습니다. HW, LW, 중간 퀴즈, 기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환 중에 할 때는 힘들긴 하지만 한국에서 듣는 것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 전공은 데이터베이스를 들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전공인데 한국에서는 전자과 1학년 전공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LAB work이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sql을 배웁니다. 기말은 이론시험이며 중간중간 시험이 3번 정도 있는데 lab work입니다.

처음에 수강신청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신청 할 수 있으며 한국처럼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수에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폐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해놓고 성적이 안 뜨면 그냥 fail로 학점인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학점이 내려가거나 하지 않습니다.(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메일을 주면 친절히 대답해주십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

기숙사는 보통 39a에 배치될 것입니다. 보증금은 300유로, 월세는 150유로였습니다. 학교에서 한 달에 한번씩 주는 서류를 가지고 이키라는 마트 안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층마다 구조가 다른데 키친룸이 있고 두 방이 같이 쓰는 경우, 방 하나에 키친룸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5층 꼭대기 층을 썼는데 키친 룸을 저와 룸메이트만 써서 좋았습니다. 기숙사는 남녀 함께 사용합니다. 다른 기숙사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2인실이며 시설이 더 좋습니다. 안 좋은 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꼭대기 층을 이용하던 저는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도 돼서 전기장판을 가지고 가시거나 거기서 사거나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침대 시트와 베게 시

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가지고 가서 바꾸셔야합니다). 방에는 침대, 책상, 선반 등이 있습니다. 주방 용품은 없기 때문에 오셔서 사야합니다. (이키나 아크로폴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지만 시간 여유가 되시면 이케아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매우 싸입니다.) 룸메이트는 기숙사 입사 전에 한국인을 할지 외국인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안 해줍니다. 저는 외국인을 선택하고 친구는 한국인을 했는데 저는 한국인, 친구는 외국인이 걸렸습니다. 근데 생활하는 방식이 외국인과 많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사감에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수 도 있지만 잘 안 바꿔줍니다. 통금은 따로 없으며 빨래방이 있지만 위생상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말릴 곳이 마땅치 않아 힘들었습니다. 빨래를 방에서 말리지 말라고 했는데 빨래방에는 늘 꽉 차있고 건조기도 좋지 않아서 주로 방에서 말렸던 것 같습니다. 밥은 주로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먹었습니다. 쓰레기는 입구를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 라인 복도 안쪽에 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로 밖에 동그란 쓰레기통에 주로 버렸습니다. 쓰레기 팁을 드리자면 리투아니아에서는 병을 살 때 환경비가 10센트 붙는데 나중에 이 병들을 다 모아서 학교 앞 이키 뒤에 병 모으는 곳에 주면 10센트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비와 여행비를 관리하기 위해 트라비 포켓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를 하나만 만들어 가지마시고 많이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중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카드가 유명하지만 외국에서는 돈 빠져나간 것이 너무 늦게 나타나서 잔고 확인하는데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이언에어 Erasmus할인은 편도 총 8번 가능합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기숙사 짐 빼고 여행 하실 경우 사용하여 위탁수하물 비용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주로 공강 때와 학기가 끝난 후 꼭 다녀왔습니다.

총 비용은 700~800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유럽은 교환학생을 erasmus라고 부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큼니다. 개강하고 처음 한 달은 계속 학교 축제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재미있는 활동이 있으니 많이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동아리는 따로 하지 않았으며 주로 MRU 대학교의 한국어학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열리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유럽과 아시아는 생각보다 문화적 차이가 많습니다. 수돗물을 먹는 문화, 건조식 화장실, 식당 문화, 술자리 문화 등이 많이 다릅니다.

리투아니아는 추운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처음 2학기 때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여름옷도 꽤 챙겨가셔야합니다. 한국처럼 덥고 습하지는 않지만 햇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신발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리투아니아에서 트레킹화를 따로 구매하거나 한국에서 미리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은 있지만 젖가락은 잘 없습니다. 물론 아시아 식당 같은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이 있고 타이거에서도 본 것 같지만 조리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챙겨 가시고 위탁수하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럽에는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리투아니아는 안전하지만 다른 서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다보면 휴대폰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환학생을 와서 유럽여행을 오래 다닐 경우 공기계를 하나 더 챙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다는 고리 같은 것은 한국에서는 많이 팔지만 유럽에는 거의 팔지 않습니다. 여분으로 더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리투아니아에는 한국의 다이소처럼 TIGER이라는 곳에서 팔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콘택트렌즈를 끼는 분들은 여행 다니다가 많이 찢어지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회용 렌즈를 여분으로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을 가서 많은 것들을 혼자 힘으로 하고 생활하다보니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가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여행하여서 매우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다른 문화들도 많이 알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귀면서 즐거웠습니다. 여행도 물론 행복하고 재미있었지만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